



제목	Medieval Central Asia and the Persianate Worl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 B. Tauris
발행일	2015. 11. 30.
저자	A. C. S. Peacock, D. G. Tor(편집자)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04
ISBN 또는 ISSN	978-1784532390

내용 요약

9세기부터 13세기 초까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페르시아 왕조는 수니파 이슬람들이 정치적·군사적 거점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역사적으로 호라산(Khurasan)과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로 알려진 이 지역에서 이슬람 문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압바스(Abu al-Abbas)가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했고, 군대 조직에 필요한 노예들을 제공했으며, 정치적인 교란과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조직을 공급했다.

이렇게 이슬람 중심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니파 페르시아 왕조는 거의 400년 동안 힘을 기른다. 그리고 그 결과 인도에서 이집트에 걸쳐 군대를 배치할 수 있었다. 아랍에서 발흥한 이슬람 종교의 영향 아래 페르시아 고유의 종교적 색채가 빛을 바랜 것처럼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어 사용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아랍의 언어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어가 아랍어에 흡수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중세 페르시아 수피시인들은 끊임없이 페르시아어로 작품 활동을 했고 페르시아인들 역시 자국의 언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대신 페르시아어는 아랍어를 제2언어로 받아들인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사이에서 이슬람 문명은 각자의 방식대로 꽃을 피운다. 그래서 이슬람 문명의 중심에 페르시아 학자들과 현자들이 우뚝 서 있다. 이들은 시, 철학, 전기, 역사, 순수 문학 및 종교 작품을 많이 저술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이슬람 페르시아의 문화적·정치적·학문적 무대의 기원과 본질을 탐구하고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만개했지만 아직 그 꽃봉오리가 제대로 탐험되지 않은 한 시대를 조명한다.